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B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부활주일 】

전 주	반주자
세례입교식	집례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5. 면류관 가지고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구원의 하나님, 긴 사순절을 지나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온 것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찾아온 것이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어두움을 벗겨주십시오. 새 생명의 은총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 주십시오. 생명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주십시오. 겸손과 섬김과 자기 부인 없이 얻게 되는 영광된 자리는 멸망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높은 곳에 서신 것 아니라 갈릴리 낮은 곳에 가셨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한 생명 살리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곳을 찾아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요14:27 인도자

♣ 교 독 문 62. 부활절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154. 예수 부활했으니 다함께

성경봉독 행2:22-24 이한림 집사

말 씬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함께

칸 타 타 1. 어린양을 보라 2. 진실로 주는 괴로움 맡으셨네 찬양대

3. 살아 계신 주 4. 할렐루야

헌신의 찬송	483.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한껏 받아 누리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기를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신 죽음의 권세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들켜안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버리고 더욱 낮은 곳을 향하며 살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심 믿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사진으로 보는 성지순례(3)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방문성 장로	인도자 윤성종 집사

4월	영접위원	구성실 이인웅 권혁순 조병주 박홍재 이건화
	헌금위원	구성실 김정길 김용진 하현철 안정숙 장혜숙

배추벌레와 배추가 가리키는 부활의 길

상처 입은 배추들만이 할 수 있는 말: “그대들의 영혼을 주시오”

배추벌레의 색깔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배추를 먹어 배추색으로 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닮아 하느님 색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 예수 그리스도의 색으로 살 존재들이다.

그렇다.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배추가 하는 것처럼 먹힌다는 것을 말한다. 말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자기의 온마음과 온몸으로 너를 너로 아름답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살리는 영향”이라고 한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 배추처럼 인내를 먹으면 인내가 되고, 배추벌레처럼 사랑을 먹으면 사랑이 된다. 배추와 배추벌레의 영향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생태 그리스도-교회론은 이처럼 선명하다.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무엇으로 살리는가?

자기를 내줄 줄 아는 영혼들만이 배추벌레-민중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대들의 영혼을 주시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영혼의 울림이 없이는,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대들의 것입니다”를 말할 수 있기까진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하다. 복되다, “그대들의 영혼을 주시오”하고 온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임장과 부활의 창조적 순환 - 돌아온 나비

배추가 배추벌레에게 사랑으로 임장(臨場, loving presence)할 때, 다 자라 나비가 된 배추벌레가 돌아와서 사랑으로 동반해 주는 복을 맞는다. 배추벌레들이 귀향하여 이번에는 배추들을 돌본다. 배추벌레가 먹고 자라게 한 배추들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찾아간다. 가서 터치한다. 그러면서 부드럽게 하는 일이 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일. 그것이 나비가 된다는 것이다.

바닥을 기는 배추벌레를 배추벌레로 받아 안지 않고는 나비의 입장을 맞출 수 없다. 벌레를 벌레로 존중하는 이 영성이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고 하늘나라를 살게 하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넘어가게 할 것이다. 느리게, 천천히, 그러나 오직 한마음으로, 생명을 향한, 생화를 향한, 살아 있기

때문에야말로 시들 줄 아는 배추들을 향한 일념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바닥을 걷다는 것은 바닥을 품어 안는다는 것이다. 바닥을 기는 그 배추벌레야말로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동지이고, 우리의 생명길이다. 그 배추벌레가 자기와 입장하였던 배추를 찾아와 새로운 입장의 기쁨을 누리 는 것, 이것이 입장과 부활의 창조적 순환의 목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비유해서 말하자면 지구 생명 공동체에 햇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부활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을 위한 것이다.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어린이, 부자나 가난한 자, 그리스도인 아닌 다른 종교인, 사람이나 동물, 식물, 물, 바람, 바위, 모래 구분 없이 모두의 머리 위에 햇살이 내린다.

그렇듯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포함하여 지구의 모든 생명들 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은총과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된다는 것, 이것이 승천과 초월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의 존재는 모두에게 살리는 길을 열어 주는 데 있다. 이것이 부활 의 이유이고 이것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입 장, 곧 임마누엘 방식이다.

이 입장을 등지는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못 박고 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독한 것 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이다. 대제관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류가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대에 이미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잘못된 길을 정당화하면서 가는 사람들, 그들이 예 수를 죽인 핵심 인사들이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이런 사람들에게 의하여 짓눌리는 이들에게 특히 복음이다. 여러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마르코 복음서의 경우 예수가 부활 한 것은 그분이 갈릴래아로 가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한다.

그곳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갈릴래아 는 소외된 땅이었다. 그러나 그래서야말로 부활한 예수를 가장 먼저 불러 들인 곳이었으니, 참으로 신음이 복의 계기로 쓰였다고나 할까.

배추벌레가 돌아왔을 때, 그는 자기를 내어준 꽃들에게 할 일이 있다. 감사하는 것,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시들기 때문에야말로 낱을 줄 안다는 것 을 확인시켜 주는 것.

노래하라, 부활을. 노래하라 돌아온 입장, 돌아온 부활을. 모든 생명을 위한 생명의 약동을
- 황종렬

부활절기는 희망의 계절이다.

여전히 두려움과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각이 있지만
그것을 꿰뚫고 들어오는 빛도 있다.
어떤 새로운 것,
항상 변화하는 우리 삶의 분위기를
뛰어넘는 어떤 것이 다가온다.
우리는 즐거울 수도 슬플 수도 있다.
낙관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다.
고요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현존의 단호한 흐름은
우리 마음과 심령의 작은 물결보다
깊은 곳에서 일렁인다.
부활절은 그의 현존이 직접 감지되지 않는 때조차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부활절은 비록 세상일들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탄이 이미 정복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부활절은 또 하나님이 매우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자질구레한 많은 일들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시며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긍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처럼 삶의 여정 가운데 빛을 비추어주는 희망의 서광은 많이 있다.

- 헨리 나웬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찬양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한상익 정영선 장영숙 신윤정 김근중 정옥영 박애순 이유선
방극숙 이인웅 김윤수 박옥겸 최미성

월정헌금:

이지훈 하정석 이명희 김현영 정원석 최윤희 김정섭 조병주 배부례
전영자 임종우 김윤정

감사헌금:

방문성 박혜경 장미란 황원순 정원석 이승영 이지은 박병규 전영자
무명1,2

생일감사헌금: 안홍숙 박병선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홍 순 덕	최 희 영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윤 수	배 부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정 진 경	임 정 자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문 영 혜	박 경 원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옥 순	안 정 숙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김 춘 려	김 경 수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임 미 심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김 채 광	최 속 화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장 혜 숙	이 봉 옥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이 정 은	구 성 실
가버나움	구 명 자	안 홍 숙	안 홍 숙	정 현 주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옥 영	임 수 연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배 삼 순	김 성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수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부활주일** :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새 생명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쁨의 부활절을 위해 찬양대가 귀한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2. **세례입교자** : 오늘 세례 받고 입교하는 이들과 유아세례 받는 아기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례입교자 - 송임희 이창석 윤정화 유소정 / 입교자 - 고은숙
아동세례자 - 권예원 / 유아세례자 - 권예진 이승효
3. **월례회** : 예배 후 제2남녀 선교회 월례회와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3,4남녀 선교회 연합 월례회가 있습니다.
4. **동호회** : 오늘 오후 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생태동호회는 1시30분에 교회 마당에서 모여 효창공원으로 생태 나들이를 갑니다.
5. **교사대학** : 오늘 12시 50분부터 제2차 교회학교 교사대학이 청년부실에서 열립니다.
6. **신앙강좌** : 다음 주일 오후 모임은 신앙강좌입니다. 용산 지역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있는 프렌드케어의 박정자 사무총장께서 오셔서 강의하십니다.
7. **아름다운 원로모임** : 다음주 25일(화)에 덕소로 봄나들이를 다녀오겠습니다.
8. **연회** : 서울연회가 18-19일 금란교회에서 열립니다.
9. **체육대회** : 온 교우가 함께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30일에 신광학교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 아침 9시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식당 봉사 : 에베소 속

* 헌화 : 윤미경 윤수진 집사 (어머니 생신)

<새교우 소개>

2615 임민정 소속: 4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4: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